

광주시·전남도, 핵심현안 사업에 내년 예산안 편성 집중

광주시, AI 혁신실증 밸리 조성·현대미술관 유치 등 예산 건의 전남도, 김산업 진흥원 조성·양식어장 개선 등 미래 먹거리 집중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핵심 현안 사업 비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혁신실증 밸리 조성(총 사업비 6000억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2025년도 국비 724억원(AI 융복합 실증 295억, 인프라 고도화 429억),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995억원)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기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국비 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445억원)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비 국비 12억원, AI반도체통합검증센터구축(300억원)을 위한 검증장비 및 기반시설 구축 국비 42억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4조5158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90억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및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경우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소 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50억원·2025년 사업비 20억원), 압축공기 저장기술 개발(410억원·2025년 81억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해양산업 분야에서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및 마른길 물류단지 조성(＼ 1000억원·2025년 17억원),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할 양식어장

구조개선(＼ 500억원·2025년 7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2025년 3억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영암-광주 간 초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고흥-광주 간 우주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고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총 사업비 5643억원·2025년 125억원)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산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 기간(6-8월)에도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차 영차~ 열정으로 무더위 날린다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농업생명과학대학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줄다리기 경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인구정책 강화·재정 혁신...민선 8기 후반기 조직 개편 단행

인구정책담당관·교육청년국·재정혁신단 신설 등

광주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인구정책담당관과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직 개편안은 인구·청년 정책 강화,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 강도 높은 재정 혁신, 현안 사업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히 지역 미래 발전을 결정할 인구·교육·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고,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는 교육청년국을 신설한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지속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저출생·일자리·복지·주택·교육 등 균형발전 관점에서 광주시 재정과 연계해 실제 인구 유입 증대로 이어지는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수립·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청년국은 산업을 기반으로 인재양성·대학 혁신·정년 정주체계 마련을 목표로 신설된다. 대학인재정책과를 신설해 인재양성과 대학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는 또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군 공항이전본부를 기존 교통국과 하나로 묶어 통합 공항교통국으로 개편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통합 공항교통국은 군공항이전추진단 기능과 함께 광역교통·공항 정책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남도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이전 지역 주민과

소통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조정실에는 재정혁신단을 신설한다.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담당관실 내 인력을 보강·운영할 계획이다.

실행력추진본부는 도시이용인구 연 3000만 시대를 목표로 복합소방물 건립, 영산강 Y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기능으로 재편한다.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는 신세계 백화점·터미널 복합 개발 검토를 주도하며 신설되는 공간혁신과는 도시재생, 노후 도시 정비를 전략적으로 기획한다. 조례안은 23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받게 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광주시 본청은 15실·국·본부, 72과로 유지되며 공무원 정원은 4182명으로 15명 줄어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힘쓰다

22개 시·군과 점검 회의

기금사업 발굴 등 협력 논의

전남도가 22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다양화와 공급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또 전국 유명 축제 및 고향사랑의 날 등에 도와 시·군의 합동 홍보를 통해 전남지역 기부금 모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22개 시·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지난 20일 영상으로 개최해 현황을 공유하고, 기금사업 발굴 및 합동 홍보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도와 시·군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향후 기금사업 발굴 계획, 답례품 발

굴 및 공급업체 점검, 홍보활동 중심의 도·시·군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금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와 22개 시·군이 공감하며, 지역 특색 및 지역 문제 등과 연계한 도내 기금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기금사업 발굴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무안군, 완도군이 기금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며, 아직 기금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11개 시·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기금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기부 동기가 되는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라며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금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자치경찰위, 치안 드론 효율적 운용 온힘

'무인비행장치 규정' 등 의결 기동순찰대 운영성과 등 보고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어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기동순찰대 운영 중간 성과' 등 12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으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주민 생활안전 순찰 등 운영 목적 및 조종자 임무와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1기 위원회의 최고 성과 중의 하나인 '드론합동순찰대 운영'의 화룡점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남 기동순찰대 운영 중간 성과' 및 '치안 드론과 기동순찰대 도서(섬) 치안 안전 대책' 등 보고안건을 논의해 치안 수요가 필요한 신고 다발 지역, 범죄 취약지, 관광객 밀집 도서 지역 등의 범죄 발생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기존 경찰청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자치경찰사무 관련 훈령·규칙·매뉴얼 등 규정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단계별 일제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 선정안 ▲2024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안 ▲2024년 '노인 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계획 ▲전남 실종자 발생 및 대응 방안 ▲2024년 경찰 선도제도 운영 계획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결과 등 안건을 보고받고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지하철 이용객 5·18 기념일에 50% 증가

6만542명 무료 이용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무료로 운행한 광주 도시철도 승객이 평소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18일 광주 도시철도 수송 인원은 6만54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토요일 평균(4만405명)보다 49.8%,

올해 토요일 평균(4만1426명)보다 46.1% 늘어난 수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전당역(7172명), 송정역(6687명), 금남로4가역(6687명) 등 순이었다.

5·18의 중심 무대인 금남로, KTX와 연결돼 외지인 왕래가 이뤄지는 송정역 등을 중심으로 수송 인원이 많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BYUN.G.U

SALE

5.22 ~ 6.8

UP TO 70%

변지유 가정의달! 대 바겐 세일 행사

이월 상품 50~7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아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